

2023년 2월 26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자) 사순 제 1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2 월]



복음화 지향 : 본당들

본당들이 친교를 중심으로 하여 더욱더 신앙과 형제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현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교황님 메시지: 상단 우측이미지 클릭)

오늘 전례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원조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며 죄를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7-9; 3,1-7

<사람의 창조와 원조들의 죄>

화답송 시편 51(50),3-4.5-6.7.12-13.14와 17 (◎ 3ㄱ 참조)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2-19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1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영성체송 시편 91(90),4 참조

주님은 당신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리니, 너는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영성체 후 묵상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유혹과, 그 유혹 앞에 나약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몸소 유혹을 받으시며 사람들과 깊은 연대를 드러내시는 동시에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범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 그분의 뜻을 첫자리에 두려고 결심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온갖 유혹을 식별하고 물리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정용진 요셉 신부 ♣️

유혹과 어려움

해마다 사순 첫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유혹을 겪으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복음은 제 1 독서의 아담과 달리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신 새 아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새 아담이실 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느님의 이끄심대로 살기를 거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그분께서는 온 삶을 하느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적어도 세 번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901 번 나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빵을 내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를, 곧 재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날마다 주어지는 하느님의 섭리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쌓아 놓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청하도록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두 번째 유혹은 우리가 하느님을 두고 겪는 가장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하느님께서 지켜 주실 테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지체 된다고 여길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서는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에 응답하시어 기적을 보여 주셔야 하지 않는가?'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하느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도 당신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요구대로 바꾸어 기적을 행해 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유혹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빛과 희망을 주시기를 청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악마는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에 대한 오롯한 믿음으로 언제나 악마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균림할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하느님을 섬길 것인가 거짓신을 섬길 것인가? 하느님을 닮을 것인가 악마를 닮을 것인가?

| 사순 제 1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악마의 유혹'
후암 데 플랑데스 작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사순시기 사랑의 나눔 봉투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순시기 동안 참회와 속죄, 극기와 희생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나눔 봉투 봉헌금'을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사랑의 나눔 봉투는 교무금 봉투와 함께 성당 입구 테이블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모금기간 : 2월 22일(수) ~ 4월 8일(토)
- 봉헌 : 4월 9일(주님 부활 대축일)에 성전 입구에 위치한 교무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허준 안토니오 (성금 전달대상 제안 등)

시드니 성당 말씀나눔(그룹성경공부) 안내

[공부기간] 2023년 3월 ~ 11월
 [신청기간] 2월 26일(주일)까지
 [문의 및 접수] 주정자 루치아 (0410 106 633)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미사 30분 전)

봉헌 순번 : (2월 26일) 요한반 → (3월 5일) 루카반 → (12일) 마르코반 → (19일) 마태오반 → (26일) 사목회

2023년 부활 판공성사 안내

성사 순번(권고) : (2월 26일) 루카반 → (3월 5일) 마르코반 → (12일) 마태오반 → (19일) 요한반 → (26일) 전신자
 ※ 판공성사표 분배 (2월 19일부터) : 소속 소공동체 반장님들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문의 : 주정자 루치아
 ※ 예비신자란? <https://www.kccanberra.org/catholic-doctrine>



중요로운 사순시기를 위한 15 가지 방법 (3 편)

부활을 준비하는 이 특별한 시기동안 보다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위해 도움이 될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 1) 하느님의 부르심과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습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 보세요.
- 2) 사순시기 동안 최소 1 회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가톨릭 복지 단체나 봉사자가 필요한 곳에 직접 방문해 보세요.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면, 직장이나 본당 공동체를 위해 도움 일이 없는지 찾아보고 실천해 보세요.
- 3) 다른 이들에 대한 무관심 혹은 험담을 피하기로 다짐하고 약속해 보세요.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로서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 구속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 4)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걷고 있거나 운전 중이거나 잠시 쉬고 있을 때, 내 곁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5)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세요. 고해성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은총이 가득한 성사지만, 열만큼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변화와 체험은 달라집니다. 고해성사를 준비하기 전에, 특히 매일 저녁마다 양심 성찰을 권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23년 사순 시기 담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시노달리타스 여정인 사순시기의 수덕"이라는 주제로 사순시기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사순시기의 여정 목표인 개인의 변모, 교회의 변모는 시노드 여정의 목표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일상생활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장인"이 되기를 권고하시는 한편, "일상의 수고들과 어려움, 반대로 점철된 현실을 직시하기 두려워 특별한 사건과 극적인 체험들로 이뤄진 종교성"으로 도피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셨습니다. 한편으로 교황님은 은총이 동반하는 이 사순시기의 수덕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저항을 극복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따른다"는 점과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귀 기울이는 상호 경청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양식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황님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고 그분과 함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따라야 할 두 가지의 '길'로 "예수님의 말씀 듣기"와 "일상의 수고들과 어려움, 반대로 점철된 현실을 직시하기"를 제안하시고, "미사에 늘 참례할 수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링크: <https://www.cbck.or.kr/Notice/20230077?gb=K1200>



| 사순 제 1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①

플라스틱에 담겨 오는 배달음식 지양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②

국산, 제철음식 구입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CPBC 뉴스
 교황과 정순택 대주교가 사순 메시지에서 강조한 것은?

2023 사순시기 2월 26일(가해) CPBC NEWS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순 담화에서 강조한 것은? 2:46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27강] 성공담 아닌 실패담이라 더 솔깃하다

Q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역사서 | 입문

CPBC 뉴스
 2024년 10월 2차 총회 개최

시노드 2024년까지 연장된다 2:28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미사 참례자수

2월 19일 (주일)	성인 44 아이 18	2월 22일 (재의 수요일)	성인 27 아이 3
-------------	-------------	-----------------	------------

□ 우리들의 정성 (2월 18일(토)~24일(금))

구민식	김요한	김태룡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명진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교무금 \$515 (13 가정) / 봉헌금 \$255 / 사순시기 사랑의 나눔 모금 \$1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2월 26일, 사순 제 1 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3월 5일, 사순 제 2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 예물 봉헌: (2월 26일) 마태오반 → (3월 5일) 요한반 → (12일) 루카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26일) 마태오반 → (3월 5일) 요한반 → (12일) 루카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매월 첫째주 식사): (3월 5일, 식사) 마르코반 → (19일, 간식) 마르코반
- ♥ 남궁례안 레안드로(27일, 어린이), 이세인 아네스(3월 2일, 청년)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희생자, 피해자와 유가족, 실종자들과 피해 복구인원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 바랍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사성가 안내(3월 5일, 링크 클릭) ♫
 (입당) 115 [수난 기약 다다르니](#) (예물)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 127 [십자가 바라보며](#)
 (파견) 491 [십자가 아래에](#)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